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9/01~2025/09/07]

2025.09.08

[로봇] 이제는 산업 특화형 로봇이 대세

- 노란봉투법 효과 지속. 딥테크 로봇 외 산업 특화 로봇 분야도 관심 확대
- 휴머노이드 양산 공급이 이어지는 중국. 유비텍 500억 계약, 애스트리뷰트 1,000대 공급
- 홍콩 상장 로봇 기업들은 실적 성장. 한국 기업들은 정체 지속

[방산] 잔잔하게 쏟아지는 방산 이슈

- 방사청장 또 사우디 방문. 정부 차원의 사우디 방산 사업 지원 활발
- 한국 2026년 국방 예산안 공개. 전년비 8% 증가. KF-21 등 3축 체계 집중 투자
- 폴란드 MSPO에서 홀로 돋보인 한화. 천무 유도탄 계약 등 다수 성과

[항공] 8월 여객 실적

- 대한항공, 결국 이코노미 3-4-3 좌석 배열 변경 중단
- 강력한 공정부 조치에 동남아 광 노선 등 노선 운영 부담 확대
-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선] USTR에 이어 IMO 조치도

- 미국 군함 한국 건조 추진 움직임 확대. 이번 주 첫 실무 협의 추진
- 한화오션의 해양 사고. HD현대중공업의 노조 파업 등 리스크 부각
- 한화그룹의 오스탈 인수 임박. 반대하던 창립자 퇴임하고 곧 FIRB 결정



Weekly Keyword

이제는 산업 특화형 로봇이 대세

노란봉투법 통과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 이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시 등 기술 기대감 보다는 실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산업 특화형 로봇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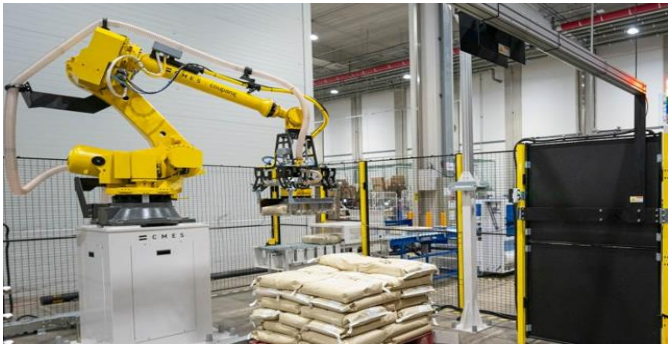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5)

[이제는 산업 특화형 로봇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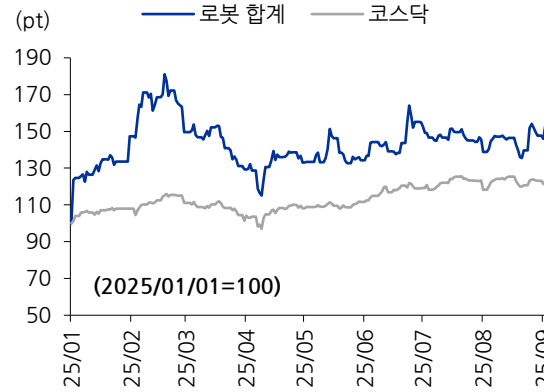
-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 지속. 올해 휴머노이드 & 피지컬 시 등 기술 관점에서 관심이 높았던 로봇 섹터에서, 노란봉투법 이후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제 상용화 가능한 산업 특화형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중.
- 노란봉투법 통과 이전인 8/22 증가 대비 주가 상승률 상위 5개사는 케이엔알시스템(유압로봇, 원전) +34%, 씨메스 +33%(비전시, 쿠팡 등 물류/제조), 하이젠알앤엠 +24%(액추에이터), 클로봇 +22%(SI, 보스턴다이내믹스), 뉴로메카 +20%(협동로봇, 조선 용접 로봇).
- 노란봉투법 통과가 당장의 자동화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거나, 로봇 수요의 중장기적 증가 흐름은 불변.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결될 로봇 종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유효한 투자 아이디어.

Key Chart: 쿠팡에 투입된 씨메스의 팔레타이징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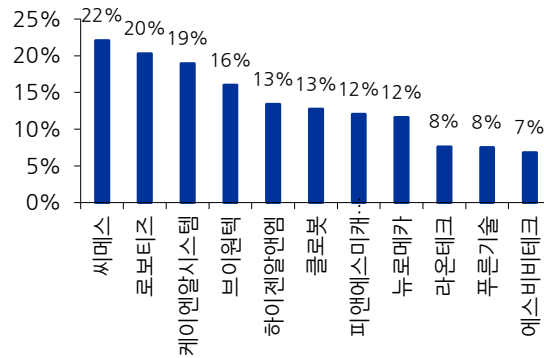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9/01~09/07)

[서비스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개, 에버랜드 퍼레이드에 참여
- 쿠팡, 올 상반기 로봇 기술 등 투자 2배 확대
- 현대위아, 자율주행 물류로봇 신제품 공개
- 티로보틱스, 북미향 자율이동로봇 추가 수주
- 뉴로메카, 큐렉소 납품계약 금액 상향
- 도구공간-레인보우로보틱스, '순찰 로봇' 개발 협약
- 양천구, 공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시작

[기타(정책/부품/SW)]

- 로보티즈가 로봇 손 초소형 액추에이터 연내 공개 예정
- 노태문 삼성 사장 "로봇은 미래 성장동력. 지속 투자할 것"
- 케이엔알시스템 '소형 서보밸브' 국산화 성공
- 테슬로, APEC 중기회의서 로봇핸드 선봬
- 거래소, 로봇 부품 본시스템즈 코넥스 상장 승인

[Global]

- 구글 딥마인드, 다중 로봇 제어 AI 모델 개발
- 美 피규어 AI, 설거지 하는 로봇 공개
- 머스크 "향후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80% 차지할 것"
-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차세대 시제품 공개
- 中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4Q 상장신청서 제출 예정
- 유비테크, 500억원 규모 휴머노이드 공급 계약 체결
- 中 애스트리봇, 산업용 휴머노이드 1,000대 공급 계약
- 中 유비테크, 중동에서 10억달러 투자 유치
- 홍콩 증시 中 로봇 기업들, 상반기 실적 개선 뚜렷해
- 도호쿠대-홍콩대, 시각-촉각 통합한 '촉각알로하' 개발



Weekly Keyword

잔잔하게 쏟아지는 방산 이슈

강력한 주주 모멘텀은 없지만 잔잔하게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음. 가장 기대해볼 것은 사우디 사업. 방사청장이 또 사우디에서 마케팅을 실시. 그 외 국방 예산 증가, 지정학 불안감 확대도 주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43)

[잔잔하게 쏟아지는 방산 이슈]

- 잔잔하게 방산 관련 이슈가 다수 나오는 중. 주요 포인트를 정리.
- **유럽 & 중동발 이슈:** 폴란드 MSPO 종료. 한화 그룹이 가장 돈보임.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현지 양산(29년~) JV 설립 합의(탄종 다양화, 폴란드 외 수출). 이 외 에스토니아 IFV 사업 관련 현지 기업과 MOU, 스웨덴 사브와 천무-GLSDB 통합, 영국과 추진체 생산 공장 설립 추진 등 활발한 움직임. 중동에서는 한화에어로가 사우디에 MENA 법인 설립. 지난 주 방사청장이 또 사우디를 방문해 MNG 대규모 지상장비 현대화 사업 및 국방부 함정/전투기/방공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2026년 한국 국방 예산안:** 3축 체계 중심 투자 확대. 특히 KF-21 관련 항공기 예산이 증가. 스텔스 기술 개발도 추진하면서 항공 분야가 최대 수혜. 또한 미국과 단계적으로 GDP 대비 3.5%까지 단계적 증액을 합의했다는 보도. 추가 30조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
- **높아지는 긴장감:** 중국에서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를 개최. 강력한 군사력 선보인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 높아짐. 미국도 일본에 타 이폰 미사일 배치하고, 무인기 개발 가속화 등 대중국. 연내 공개 예정 인 NDS에서 고립주의 노선 강화 가능성 지속 제기.

Key Chart: 사우디에서 N번째 마케팅하고 온 방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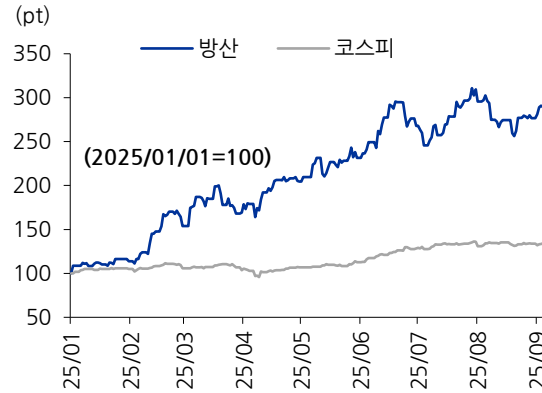
사우디 전력증강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9.07 14:16 | 업데이트 2025.09.07 1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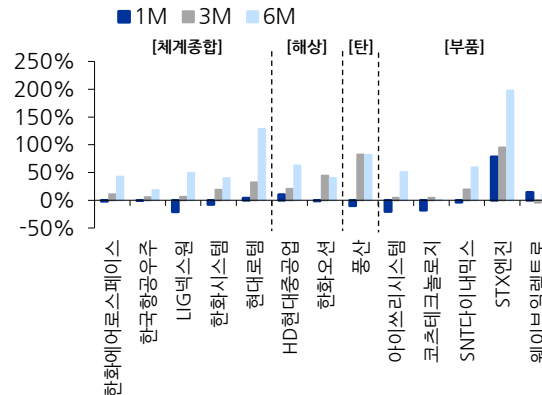
방사청장, 사우디 주요 인사 연담
방산협력 논의 기업 현지 활동 지원

자료: 국방일보,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9/01~09/07)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폴란드 WB와 '천무 유도탄' 합작법인 설립 합의
- 한화에어로, 영 추진체 생산공장 설립 추진. 협상 착수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사우디에 중동 阿 총괄법인 설립
- 한화에어로 '천무'→'딥 스트라이크' 새 명칭 달고 유럽 공략
- 한화에어로-사브, 천무 발사대에 'GLSDB' 통합 추진
- 한화에어로, 폴 '군사기술무기연구소'와 K9 탄약사업 협력
- 한화, 에스토니아 기업과 IFV '두뇌' 공동개발
- 한화시스템, 폴란드서 전차용 능동방호체계 최초 공개
- 현대로템, 무인차량 'HR-세르파' 폴란드서 공개
- 현대로템, 이스라엘 라파엘과 트로피 APS 통합 합의

[기타]

- 석종권 방사청장, 사우디 방문 및 대규모 방산협력사업 지원
-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
- 韓 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글로벌]

- 독일 총리 "우크라 종전 환상 없다. 장기화 대비"
- 새 ICBM '동평-61' 첫선. 미 겨냥 첨단무기 대거 과시
- 美, 日과 합동훈련 기간 타이폰 배치. 첫 일본 배치
- 트럼프,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 변경 행정명령
- 미 해군, 워맨 무인기 설계 위해 4개 업체 선정
- 미 GAO, F-35 블록 4 업그레이드 31년까지 연기 전망
- 록히드마틴, 다년 계약으로 PAC-3 98억달러 수주
- 미국, 발트 3국에 군사 지원 식감 통지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8월 여객 실적

3분기 성수기의 마지막 달인 8월 여객 실적은 생각보다 견조했음. 올해는 추석이 10월인 만큼,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에 더 기대를 가져봐야할 것. 9월 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도 기대 요인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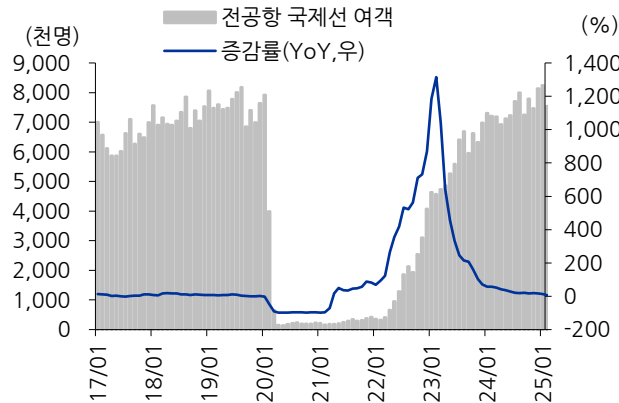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3)

[8월 여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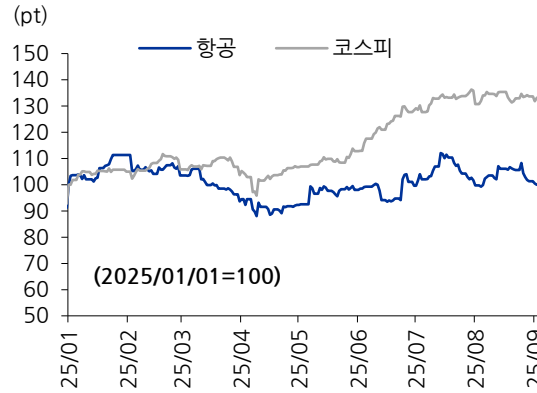
■ 8월 국제선 여객 853만명(+6%mom, +7%yoy), 국내선 여객 549만명(+5%mom, -2%yoy) 기록. 국제 여객 수는 전년비 증가세를 유지. 일본 노선도 지진 우려와 더위를 딛고 회복했음. 공급력 관점에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도 사고 여파 딛고 정상화 근접. 경쟁 심화 속 운임 하방 압력은 지속 우려 요인. 대한항공-아시아나 공경위 조치에 따른 대양주 노선 공급 확대로 여객 수는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예의주시. 올해 최대 대목은 10월 추석 장기 연휴. 단기적으로는 9월 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에 따른 중국 노선 수요 증가 효과 기대. 항공 업종 전반적으로 3분기 성수기 실적 기대감은 낮추고 오히려 4분기 실적 개선 흐름에 관심 필요.

Key Chart: 전 공항 국제선 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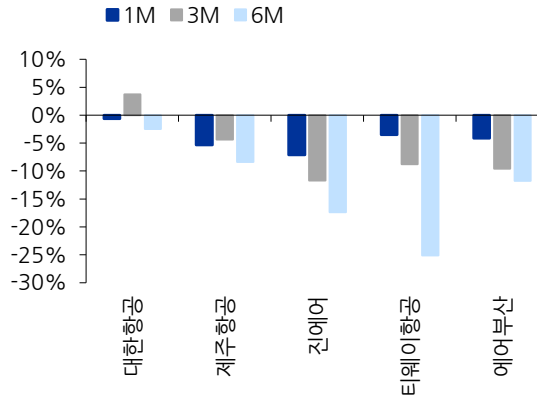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9/01~09/07)

[여객/화물]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에 관, 사이판 노선 부담
- 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최대 15일간 무비자 여행
- 제주항공, 추석 연휴 국내선 18편 증편. 3천400여석 추가
- 저가소포 관세 면제 폐지 뒤 미국행 우편 81% 급감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3-4-3 배열 안 한다". 개조 계획 중단
- 운임 30% 마일리지로 결제.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 방안
- 아시아나, GGK 기내식 계약 무효 소송 취하
- 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 인타라인 협약 체결
- 에어프레미아 인수 주체, '성공을만드는'으로 교체
- 티웨이항공-소노호텔, 펫 동반 제주 항공숙박 프로모션
- 파라타항공 2호기 A320-200, AOC 취득 전 도입
- 섬에어, 12월 ATR 72 도입. 내년 상반기 사천, 울산 취항

[기타]

- 공경위, 아시아나 현장조사 착수. 기업결합 조건 위반 추적

[글로벌]

- 제트블루, 아마존 위성인터넷서비스 첫 항공사 고객
- 프런티어, 탑승 무제한 패스 출시... 내일까지지만 299불
- 항공편 지연 시 최대 775불 보상, 트럼프 행정부서 무산
- 에어버스, 8월 신조기 60대 인도에 연 목표 달성 어려워
- 일본 스미토모 상사, 항공기 리스 에어리스 인수
- 日항공사 가장 음주로 3개 항공편 최대 18시간 지연



Weekly Keyword

USTR에 이어 IMO 조치도

미국 USTR의 조치 효과가 약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IMO 중기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친환경 모멘텀도 희석될 가능성 제기. 단기적으로 조선 업종에서는 상선보다는 방산 관련 모멘텀 중심 접근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3)

[USTR에 이어 IMO 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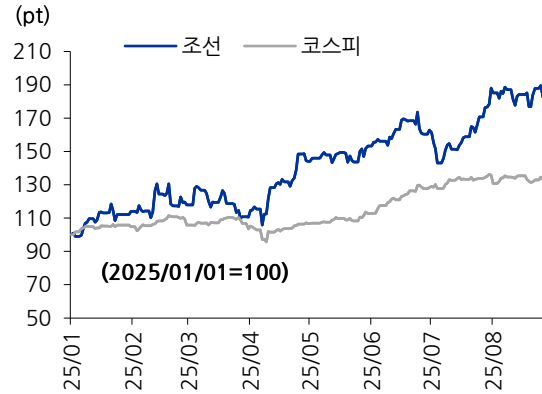
- 10월 14일~17일 개최될 임시 MEPC에서 IMO 중기 조치(GFI 기준치 초과 온실가스 배출 선박에 대해 \$100~380/톤 탄소세 부과) 표결 예정. 관련해서 미국의 표결 반대 압박이 커지고 있음.
- 미국은 표결에서 찬성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항만 과징금 등 조치를 검토. 이미 8월 12일 국무부 성명으로 IMO를 견제한 바 있음. 10월 표결에서는 비준국 108개국 중 3분의 2 이상 찬성(72개국)이 필요.
- 참고로 지난 MEPC 83차 회의에서는 63개국 찬성, 16개국 반대, 24개국 기권. 미국 압박에 의해 표결 부결 가능성 주목. 표결 승인 이후에도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 또는 전 세계 상선 선대 총톤수의 50% 이상을 합산하여 보유한 당사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불확실성이 잔존. 상반기 국내 조선소들의 상선 모멘텀을 뒷받침한 IMO 및 USTR 조치의 효과가 다소 약해지는 중. 조선도 방산 모멘텀 중심 접근 필요.

Key Chart: IMO 온실가스 감축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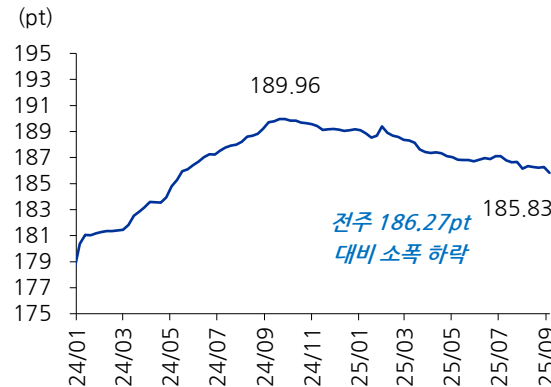
연도	결정 사항	주요 내용
'18년 4월 (MEPC 72)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채택	- '08년 대비 '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50% 감축 목표 - 가능한 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 단계적 퇴출 목표 설정
'18년-'23년	온실가스 단기조치 개발 및 시행	- 에너지효율지수(EEXI)가, 탄소집약도지수(CII) 도입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강화
'21년 6월 (MEPC 76)	중기조치 작업계획 수립	-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조치 제안 목록화, 후보 조치 선별, 영향평가와 협약 이행체계 개발 논의
'22년 11월	단기조치 발효	- EEXI, CII, SEEMP 규제 적용
'23년 7월 (MEPC 80)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전략 채택	- 2050년경 넷제로 목표 확정 - 중기조치의 구체적 형태 및 추진 일정 명시
'23년-'30년	온실가스 중기조치 개발 및 시행	- 친환경 대체연료 전환 가속화 - 목표기반 연료유류준제(GFS), 시장기반 메커니즘 구체화
'25년 4월 (MEPC 83)	중기조치 승인	- 중기 기술 경제 조치 최종화 - 목표기반 연료유류준제(GFS), 온실가스 가격 메커니즘 구체화
'25년 10월 (MEPC ES.2)	중기조치 채택	- '27-'28년에 넷제로 펀드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30년 이후	장기조치 개발	- 탄소중립 연료 기술 도입 본격화 -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실현

자료: 해수부,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9/01~09/07)

[상선/해양]

- HD현대삼호, 2,422억원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수주
- HD한국조선, 필리핀서 강재절단. 2번째 해외조선 건조 시작
- 한화오션 조선소서 선주 감독관 추락 사망
- 고용노동부, 한화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중지 명령

[특수선]

- 美군함 한국서 건조' 실무협' 본격화. 다음 주 첫 회의
- HD현대중공업 '필리핀 호위함' 추가 수주 9부 능선 넘어
- HD현대·한화, KDDX 공동설계-건조 급부상
- 한화오션, 폴란드 방산전 참가. "오르카 수주 총력"
- 한화 오스탈 인수 FIRB 결정 이달 중 예정
- 오스탈, 한화 인수 반대 일색 창립자 38년 만에 이사회 퇴임
-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 17일 진수식
- HD현대중, 필리핀에 3200t 신형 호위함 인도 임박

[기타]

- HD현대중 노조, 9~12일 7시간 부분파업 예고
- HD현대 "조선소 안전 위해 3조5000억 투자"
- 한화임팩트, 한화오션 지분 매각 1.4조 확보. 마스가 투자

[글로벌]

- 넥스트디케이드, EQT와 20년 장기공급계약 체결
- 넥스트디케이드, 리오그란데 LNG FERC 최종 승인
- 넥스트디케이드, 리오그란데 5번 액화설비 FID 11월로 지연
- 캐피탈가스, LNGC 1척 해체. LNGC 해체 역대 최고
- 미국 IMO 해운 연료 감축안 강력 반대
- 중국 푸젠함 올해 9월 실전 배치. 2030년대 항모 6척